

## 네팔에서 드리는 10월의 기도편지

10월에는 네팔에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dashine(더사인)이 있는 달입니다. 한해의 추수를 기념하면서 모든 가족들이 모이는 힌두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해외에 사는 네팔 사람들도 이 기간이 되면 이마에 빨간색 쌀같은 것을 그득하게 묻히고 지하철을 타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함께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집안의 가장 큰 어른에게 축복을 받고 제사를 드리는 절기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트만두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우리네 추석과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20여년전에는 이 기간이 되면 한달 정도 페스티벌을 가지게 되어서 집에 한달치 식량을 쌓아놓고 드라마 한시즌을 봐도 시간이 남을 정도로 긴 휴일이었는데, 요즘에는 1주일정도만 쉬고 가게들도 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세월의 흐름을 느끼기도 합니다.

한해가 마무리 되어가는 10월속에서 모든 분에게도 올 한해에 추수할 것들이 많은 의미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 1. 지붕 공사

초등학교 과학과 수학교사 선생님이 그만두게 되어서 그 빈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4,5학년 아이들 과학을 가르치는데, 때아닌 장마성 호우가 내렸습니다. 보통 이 기간에는 건기시즌이라 비가 안내리는데 장대비가 내렸는데, 양철 지붕에서 비가 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익숙하다는 듯 책상과 의자를 치워서 수업을 하는데 폭우처럼 쏟아내는 비에 금새 바닥이 흥건해 졌습니다. 그리고 보니 이 건물들은 제가 20년전에 네팔에 와서 지었으니 벌써 20년이 지나면서 지붕이 삭아서 구멍이 많이 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붕을 고쳐주어야 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이럴때 제가 계획하고 이렇게 하자고 진행하기보다는 현지의 의견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는것이 중요한 방법중에 하나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어느날 아침 교장선생님이 이번 겨울 방학때 지붕을 새걸로 교체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면서 저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좋다고 우리 지붕을 고치면서 층고도 올려서 더위도 좀 감할수 있겠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현지 선생님의 의견에 발을 맞추어서 함께 진행하는 것이 선교사와 현지인과 호흡하는 중요한 원칙이기때문입니다.

이번 겨울 방학동안 진행할 지붕공사를 위해 함께 마음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2. 떠나는 사람을 잘 보내주기

선교지에서 자주 경험하는 것들중 하나는 아마도 함께 일하는 사역자들과의 이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선생님들이 자신의 다음 행선지가 결정이되면 학기중이라도 떠나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게 떠나가게 될때 바로 전날까지도 이야기 하지 않아서 모른채 보내는 경우가 부지기수 였습니다.

저번 기도편지에 한번 언급했지만, 이번에 일본으로 떠나가게 되는 초등학교 과학선생님을 위해 예배시간때 기도했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조만간 안나온겠지만 축복하고 격려해 주고 싶었는데, 정해진 날을 넘어서 학교를 위해 봉사하고 떠났습니다.

떠나고 난 어느날 학교 코디네이터인 비샬 선생님이 초등학교 과학선생님 내외를 불러서 선물을 주고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 어떻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냥 보내기보다는 우리가 그에게 좋은 선물과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면서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이였습니다.

저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이고 그런 생각을 해주어서 고맙다고 하면서 회식비를 아낌없이 지원해주었습니다. 회식에 이사장이 참여하는 것은 좋지 않아서 선생님들끼리 즐겁게 맘껏 회식할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를 떠나는 선생님들을 위해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의미있게 이별을 할수 있게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팔에는 별로 없는 문화인 이별에 대한 어색함을 뛰어넘는 비살 선생님의 아이디어는 복음으로만 가능한 자신의 문화를 넘는 변화를 일으키는 새창조의 증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